

# 해원상생의 실천방법에 대한 소고

尹在根\*

| 目次            |              |
|---------------|--------------|
| I. 머리 말       |              |
| II. 상극의 세계    | 2. 원과 척의 소멸  |
| 1. 상극적 세계관    | 1) 無愆        |
| 2. 원과 척       | 2) 報恩        |
| III. 해원상생의 세계 | IV. 해원상생의 실현 |
| 1. 상생적 세계관    | 1. 修道        |
| 1) 생명 존중      | 2. 開關        |
| 2) 차별의 철폐     | V. 맺는 말      |

## I. 머리말

인간이란 항상 무엇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한 인간의 속성일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이 되는 존재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요인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간 역시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채우려는 욕심 또한 이러한 본능에 기인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물론 사회의 관습, 전통, 법에 의한 제재 등이 있으므로 자신의 욕심에 따르는 행위가 무조건 행동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외적인 제재와 욕망을 채우려

---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는 욕구가 항상 대립되어 싸우는 형국이다. 이러한 모습은 개인의 차원에서, 또는 사회의 차원에서 모두 나타나며, 또 이 양자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가 바로 이러한 대립이 균형을 잃게 되면서, 즉, 개인의 통제나 사회의 통제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현대의 사회가 다양한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발생하는 문제도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선천의 상극적인 세계관에서 나타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典經」에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sup>1)</sup>라는 지적이 바로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의 원인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선천의 세계에서는 서로가 적이 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싸우게 되었으며,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원과 한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이기주의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기주의적인 의식에는 자신은 다른 존재와 무관한 독립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하며,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도 된다는 의식에, 남의 삶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삶의 모습을 들어낸다. 현대인들의 심각한 병폐는 바로 이러한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어떠한 삶도 獨立的이고, 自存的일 수 없다. 나의 행위는 바로 주변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마찬가지로 타인의 삶의 행위도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사고 방식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 날 때부터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삶이 영위된다. 이러한 것이 망각되면, 이기주의의 의식에 빠지게 되어 私利私慾을 맹종하게 된다. 이러한 意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사회 속의 개인이라는 관점, 자신의 이익 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의식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로의 삶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공생하는 존재며,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서로 함께 잘사는 방법이

1) 公事, 1장, 3절

모색되어야 하고, 그 방법이 바로 해원상생이며, 해원상생의 실천이 곧, 개인과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실현하게 되어 함께 잘 사는 세계를 건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순사상에서는 개인의 궁극적인 목표의 실현과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해원상생을 실천적인 강령으로 제시한다.

그러면 먼저 이러한 상극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를 「典經」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해원상생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를 살펴 보도록하겠다.

## Ⅱ. 상극의 세계

### 1. 상극적 세계관

현실세계의 현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만족할 만하다고 받아들이는 종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부귀와 빈천에 관계없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전혀 수정할 부분이 없는 완벽한 세계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현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현실 세계란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장소이지 현실 자체로서 만족할 만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의 현실이란 내세를 준비하는 중간 단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불교에서도 현실이라는 고통받는 세계를 벗어난 해탈의 세계를 추구한다. 이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회란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 받으며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이상사회는 어떠한 사회인지 또는 어떠한 세상인가를 나름대로 규정하고, 그러한 세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각각의 종교 전통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至難한 문제이기도 하다.

즉, 유교는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이 욕심을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송·명대의 유교에서 ‘存天理滅

人欲'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를 건립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인 대동사회는 인간 개개인이 욕심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 세계의 잘못된 현상은 모두 인간의 욕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관점을 갖는 것이 불교다. 불교는 현실 세계를 고타라고 한다. 태어나는 것, 늙어 가는 것, 병들어 있는 것, 죽는 다는 것 모두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고통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나는 것, 갖기를 원하나 갖지 못하는 것, 인간의 육신 자체 등이 고통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 자체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설명이다. 부처는 이 '고'를 苦苦性, 壞苦性, 行苦性이라고 하였다. 처재로, 고고성(苦苦性)이란 고타라고 하는 문자를 둘 연속해서 쓴 것인데, 이는 원래부터 괴로운 조건에서 생겨 나는 것은 고타라고 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의미를 드러 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혹독한 추위나 더위는 그것이 본래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겪을 때 인간은 괴롭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이다. 다음으로 괴고성(壞苦性)이란, 무엇이 파괴되어 생기는 괴로움을 뜻한다. 즐거움이 파괴되었을 때라든가, 애지중지하던 귀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괴로움을 지칭하여 壞苦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고타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괴로움이란 이러한 苦苦性이나 壞苦性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 부처는 行苦性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行이라고 하는 것은 천류(遷流), 즉 '모든 것은 흘러 간다', '일체는 옮겨 간다'고 하는 존재의 무상함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것을 조건으로하여 생기는 괴로움을 行苦, 또는 行苦性이라 이르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執着이다.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집착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유교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그 잘못의 원인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나 사회의 혼란을 단지 인간의 마음에서만 찾지 않는다. 「典經」에서는 선천의 세

2) 정진홍,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 전망사, 1983, pp. 76 - 77.

계를 상극의 세계로 파악한다. 상극의 세계란 앞서도 인용한 것처럼,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된 세계다. 이러한 세계는 인간과 모든 일체의 사물이 순리에 따르지 않게 되어 혼란이 일어나는 세계다. 여기서 말하는 혼란이란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고, 원하는 바에 따라 일이 성사되지 못하는 세계다. 이렇게 참혹한 세계의 원인은 상극의 이치라고 하는데, 이 이치는 정해진 바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그 이치를 거스리는 것이다. 儒敎에서,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고, 하늘을 따르는 자는 흥한다’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치를 거스르는 모습은 인간 자신과 신명계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인간 사회에 국한시켜 보지만 대순사상에서는 인간계에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명계와 연관시켜 본다. 이것이 대순 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典經」에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sup>3)</sup>고 하신 것이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문제를 인간계에 국한시켜 보는 것이 아니며, 혹은 불교나 유교처럼 단순히 인간의 마음에서만 그 해결점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다. 만일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인간의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마음 만을 진리에 계합하도록 함으로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는 움직여 가게하는 이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세계는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상호 투쟁적인 현상을 드러내게 되는 이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극적인 모습의 원인을 단순히 현실 세계나 인간의 마음에 국한시켜 보지 않는다. 이 원인을 신명의 세계에 까지 확대시켜 그 원인을 찾아 내하고자 한다.

3) 公事, 1장, 3절

물론 그렇다고 인간의 마음의 작용을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典經』에서,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차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sup>4)</sup>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 진실을 쫓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교나 불교처럼 인간의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짜 놓은 도수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그 이치를 따르지 못하고 마음이 샅된 행위를 일삼는다면, 신명에 의해 그 댓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여, 인간의 마음의 자세와 진실을 따르고 실천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이 대순사상의 현실 세계에 대한 상극적 세계관이 유교나 불교의 세계관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상극적인 세계는,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sup>5)</sup>라는 언급에서 나타나듯이 선천의 세계에서는 상극의 이치가 지배하였다고 하여, 인간의 마음에서만 그 원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잘못이 세상을 지배한 이치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극의 세계는 상호 간의 대립, 투쟁, 갈등에 의해서 원한이 쌓이고, 척을 지을 수밖에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천은 상극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간대이기 때

4) 教法, 3장, 24

5) 教法, 3장, 4절

문에 원한이 쌓일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극한적인 지경에 이르러 殺氣가 터져나와 갖은 재앙을 일으키는 파국에 까지 오게 된 불행과 고통의 시대이다. 또한 선천은 영웅을 이상적인 인물로 존중하는 시대이므로 자연히 상대방을 해치고 이겨 살아 남는 것 만이 가치 기준이 되어 罪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죄악의 시대인 것이다. 즉 선천은 근본적인 원리 자체가 불완전한 미완성의 시대였으며, 모든 죄악이 범행되고 원한이 온 세상을 폭파할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는 묵은 하늘인 것이다.<sup>6)</sup>

이러한 상극적인 세계는, “상제께서 가라사대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동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베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 하였거늘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 일을 밋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옥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나니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므로 만물 중에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낼수 밖에 없나니라.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하셨도다”<sup>7)</sup>라고 한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만고의 역신에 의해서 원한이 가득찬 세계며, 시비가 끊이지 않는 세계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에게는 한이 쌓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책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을 가진 세계다. 또한 계속된 혼란에 의해 가중된 고통과 불합리한 갈등과 투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극단적인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극의 이치에 지배되는 현실 세계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 2. 원과 척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선천에서는 상극의 이치에 의해서 인간의 세계에

6) 金鐸, 甌山敎의 創造的 解釋에 관한 研究, 宗敎研究, 제3집, 韓國宗敎學會, 1987, pp. 167-168

7) 敎法, 3장, 6절

원한이 쌓이게 되고 이로 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개인의 경우에는 한으로 표현된다. 전통적인 巫俗에서도 개인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무당의 주요한 일이었다. 것처럼 각각의 개인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상극의 이치에 지배를 받게 됨으로서 한이 쌓이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인에게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典經]에서, “상제께서 하루는 경석에게 검은 색 두루마기 한 벌을 가져오라 하시고 내의를 다 벗고 두루마기만 입으신 후에 긴 수건으로 허리를 매고 여러 사람에게 ‘일본 사람과 같으냐’고 물으시니 모두 대하여 말하기를 ‘일본 사람과 꼭 같습니다’하노라 상제께서 그 의복을 다시 벗고 ‘내가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이웃 아이와 떡으로 장난을 하다가 그 아이가 나에게 지고 울며 돌아가서는 다시 그 서당에 가서 글을 읽다가 얼마 후 병들어 죽었도다. 그 신이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해원을 구함으로 그럼 어찌 하여야 하겠느냐 물은 즉 그 신명이 나에게 왜복을 입으라 하므로 내가 그 신명을 위로 하고자 입은 것이니라’고 이르셨도다”<sup>8)</sup>한 것을 보면, 한이라는 것이 인간사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 일을 처리하거나 대처하는데 있어서 일의 대소나 경중을 구별하지 말고 항상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모든 것이 미세하거나 사소한 것에서 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로부터 문제가 일어 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제께서도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 (敎法 3장 24절)고 하신 것이다. 그러한 예가, “이웃 사람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혹 병이 생겼을 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끊겨 또한 척이 되느니라”<sup>9)</sup>고 하신데서도 보여지며, 또 수운의 한을 풀어 주는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즉, “상제께서 사명기(司命旗)를 세워 전명숙과 최수운의

8) 行錄, 4장, 54절

9) 敎法, 2장, 46절



원을 풀어 주었도다. 상제께서는 피노리(避老里)의 이화춘(李花春)의 집에 이르셔서 그에게 누런 개 한 마리를 잡고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뒷산의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소나무 한 그루와 남 쪽 양달에 있는 황토를 파 오게 하고 백지 녀 장을 청 홍 황의 세 색깔로 물들여서 모두 있고 베어 온 소나무의 한 윗 가지에 달게 하고 백지 석 장에 각각 시천주를 쓰고 그 종이 석 장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잇고 또 소나무 가지에 달고 그 나무를 집 앞에 세우시니 마치 깃대와 같은지라.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곳에선 전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사명기(司命旗)가 없어서 포한(抱恨)하였나니 이제 그 기를 세워 주고 해원케 하노라.’ 다시 상제께서 사명기 한 폭을 지어 높은 소나무 가지에 달았다가 떼어 불사르시고 최 수운을 해원케 하셨도다.”<sup>10)</sup>라고 하신 것이 그 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간의 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갖추어야 할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원한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개인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원한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데 있다. 물론 인간이 욕구하는 바가 모두 정당한 것인가가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상극의 세계에서는 그 욕구가 정당한 이치에 맞는가 또는 맞지 않는가가 문제될 수 없는 세상이다. 중요한 것은 다만 인간 개개인이 원하고 욕구하는 것이 충족되는가 충족되지 못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정당한 이치가 이치가 실행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원하는 바의 정당성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욕구가 실행된다하더라도 그 욕구의 충족이 타인에게는 또 다른 원한이 맺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典經]에서, “속담에 ‘무척 잘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sup>11)</sup>고 지적 하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사실 타 종교의 윤리적인 규범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10) 公事, 3장, 2절

11) 教法, 2장, 44절

요소들이다. 만일 나 자신이 자신의 욕망만을 고려하여 행동한다면, 이 행동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느 종교든지 그러한 행동을 금하는 것이다. 불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업사상에서 언급한다. 결국 타인에 대해 짓는 죄업은 바로 자신에게로 되돌아 오게 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설명은 이러한 업은 개인의 탐욕으로 부터 생기는 것으로 보아 문제의 해결을 개인적인 문제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의 지적과는 달리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원한에는 그 시초가 있음을 말한다.

[典經]에서는, 이 원한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sup>12)</sup>라고 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한의 감정은 요 임금의 아들인 단주로 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발단으로 이 세상을 참혹하게 만든 원한이 쌓이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맺힌 원한들은 전통적인 유교의 윤리로 부터 기인하는 것들로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 발생하는 원한이 그러한 것이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 규범을 가졌던 시대였으므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적합한 권리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의 이러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男尊女卑’ 사상이 정확하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대변해 준다. 그러므로 [典經]에서도,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나타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의 철폐를 주장한다. 즉, “후천에서는 그 닻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12) 公事, 3장 4절

무너지리라”<sup>13)</sup>고 하신 것이다.

또 다른 차별은 신분에 관한 것으로,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또한 많은 원한을 쌓이게 만들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상제께서도 그 부당함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sup>14)</sup>라고 하신 것과,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나 말씀을 낮추사: 읍소사’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일러주셨도다”<sup>15)</sup>라고 하신 것은 신분의 차별로 부터 오는 원한을 막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외에도 빈부와 귀천의 차별은 조선 사회를 그 기반부터 흔들리게 하는 폐단을 낳아 사회적인 통합력이 약화되고 점차 그 구심력을 잃게 되어 결국은 일본에 합방되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사회적 부조리와 백성들이 겪는 차별의 고통은 백성들로 하여금 기존의 사회 질서를 맹종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사회 전체의 분열이 초래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 결과는 당시의 세계적인 정세에서 볼 때 명약관화 한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차별들로 부터 사회 전체적으로는 원과 척이 그치지 않고 쌓여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한 개인의 마음과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원한은 결국 천지기운의 운행을 막히게 하여 인간 세상의 모든 혼란이 야기된 것이다. 이러한 원한은 한 개인이 품어도 천지 기운이 막힌다고 한 지적에서 볼 때도, 당시의 시대적인

13) 教法, 1장, 68절

14) 教法, 1장, 9절

15) 教法, 1장, 10절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던가를 짐작케 한다. [典經]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 “상제께서 기유(己酉)년에 들어서 매화(埋火)공사를 행하고 사십 구일간 동남풍을 불게 하실 때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이므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도다”<sup>16)</sup>라고 하여, 사람들이 마음 속에 품는 원한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결국 인간의 현실 세계는 상극의 이치에 빠져 원한이 가득 찬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 Ⅲ. 해원상생의 세계

#### 1. 상생적 세계관

상생의 세계란 상극의 세계와 대비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적용되는 이치의 합당성에서 그 특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선천의 세계에서는 이치가 서로 대립되고 갈등을 야기하게끔 짜여져 있었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후천의 세계에서는 이치가 바로 서게 되어 모든 일들이 원만하고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상극적인 세계의 모습이었던 원한이 사라진 세계다. [典經]에서는,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

16) 公事, 3장, 29절

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sup>17)</sup>라고 하여 후천 세계의 근본적인 특징을 '相生의 道'에 의해 운행되는 것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먼저 살펴 '相生'의 의미하는 바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생이나 상극의 의미를 중국 철학에서 보여지는 음양오행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순사상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이와는 다르다. 중국 철학에서 말하는 상생과 상극설은 음양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음양은 주역에서 유래하는 바 우주와 이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가 이원적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즉,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로 상징되는 음과 양의 원리(兩儀)는 다시 2분법에 의하여 太陰, 小陰, 小陽, 太陽의 사상(四象)을 얻게 되고 그것의 또 다른 2분법(binary discrimination)에 의하여 팔괘(坤艮坎巽震離台乾)가 나온 것이다. 이 8괘가 조합된 64괘로 우주의 변화 현상을 범주화한 것이다."<sup>18)</sup> 즉, 상생과 상극의 원리가 되는 음양오행설이 등장하게된 근본 목적은 우주 현상의 변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음양의 이론으로 부터 파생된 오행설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적 원리로서의 5원소, 즉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가 상생(相生) 혹은 상극(相克)하는 관계의 구조를 말한다. 음양오행설은 더우기 12간지(干支)와 결합해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제 사물의 관계 및 관념 형태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인식하는 틀로서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민중의 소박한 자연 철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아울러 그 변화의 원리는 개인이나 집단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계기적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데 공식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예점(豫占)이나 나아가 운명의 예측에 이용되고 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한편 중국적인 사고가 복고주의를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역사관도 순환사관이라는 점에서 주기적인 종말론을 관념화한 것으로 볼 때, 새로운 혁성혁명(易性革命)과 미래 국토에 대한 대망이 유교 문화의 외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sup>19)</sup> 그러므로 중국 철학에서 논의 되는 상생과 상극설은 주로 우주 운행의 법칙이나 왕조의 흥망성쇠

17) 公事, 1장, 3절

18) 황선명, 민중종교와 권위신앙, 주류, 1982, p. 40

19) 앞의 책, pp. 40 - 41

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순사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相生의 의미에는 “‘원을 푼다’ (解冤)는 사상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원을 푼다는 것과 상생의 원리(道)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여기서는 상생의 원리를 풀어 말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相生’의 ‘생’이 ‘살릴 生字’ 라는 것만을 말하는 데 그친다. 그러한 점에서 저 五行說에서 말하는 상생과 매우 다르다. 오행설에서 말하는 상생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으로 예컨대 ‘木이 火를 生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꾸로 ‘화가 木을 生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불은 나무를 이긴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오행설의 상생도 거꾸로 보면 일종의 상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증산은 낡은 시대(先天)에는 상극의 원리가 지배하였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새 시대(後天)를 지배할 상생은 상호의 관계일 뿐이다. 곧 새 시대의 상생은 서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을 뜻할 뿐이다.<sup>20)</sup>

이처럼 중국철학에서 논의하는 상생과 상극설과 대순사상에서 논의하는 설명은 다르다. ‘상생의 도’는 앞의 인용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민생 구제의 의미가 무엇 보다도 중시되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상생의 도는 선천에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게 했던 잘못된 바를 뜯어 고치는 근본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도에 근거한 상생의 세계가 도래해야하는 필연성과 모습을 [典經]에서는,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새 뜸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드러들게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야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채워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니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곡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있나니라”<sup>21)</sup>고 하였다.

낡은 시대에는 상극의 원리가 온 인류의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게 되어

20) 崔東熙, 韓國思想의 源流와 龜山思想, 龜山思想研究, 15輯, 1989, p. 89

21) 教法, 3장, 4절

사람들 사이에는 원한이 맺히고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원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원수가 되어 온 인류는 무서운 불행속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새시대의 참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 뿌리깊이 도사리고 있는 '원을 풀고' 상생의 원리에 따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sup>22)</sup>

또한,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sup>23)</sup>”라고 하여 사상적인 측면 다원화된 사회가 어떻게 공존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다. 사상의 다양한 표현이 단순히 현실 세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곧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명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思想의 다원화는 근본적인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조화의 방법을 찾아야 할 문제다. 이러한 반목과 쟁투를 없애기 위해 사상적인 통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계의 조화를 우선시 하는 것이다. 이 점이 대순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배종호는 이렇게 설명한다. 즉, “甌山은 말하기를 ‘천지간에 찬 것은 神이니, 풀잎 하나라도 神이 떠나면 마르고 흙 바를 벽이라도 神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神이 들어서 되느니라’고 한다. 이 입장은 宇宙氣를 바로 神으로 본 것으로 東洋傳統的인 神觀을 바로 말한 것이다. 이에 그는 일원적 다신의 구도에서 人界와 神界를 一氣相應으로 보고, ‘이제 混亂 覆滅之境에 다다른 天地運路를 改造하여 새 世上을 열고, 大否劫에 빠진 사람과 神明을 널리 건져 各自에게 安定을 누리게 하려는 모임이라’고 하고, 또 ‘天地를 開闢하고 無窮한 運數를 定하여 造化政府를 열어 災難에 빠진 神明과 民衆을 건지려 하니라’ 한 것은 神明과 사람(民衆)이 다 災難에 빠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冥府公事의 審議에 따라

22) 崔東熙, 앞의 책, p. 89

23) 公事, 3장 5절

서 世上의 모든 것이 決定되나니, 冥府의 混亂으로 因하여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한 말은 神界와 人界의 同氣相應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冥附公事로써 天地度數를 뜯어 고친 것은 神道를 바로잡은 것으로 그것은 선천의 상극지리를 후천의 상생지리로 그 天地運路를 改造한 것이다. 모든 것이 相生順으로 이루어지는 곳에는 劫災도 사라지고 怨恨도 맺힐 理가 없을 것이다”<sup>24)</sup>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이 세상의 구성을 단순히 인간계와 자연계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명계도 포함시켜 문제를 보는 시각이다. 또한 참된 상생의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이 모든 존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한 부분이 제외 된다면 그것은 참된 상생의 세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상생의 세계는 인간 현실 생활면에서도 차이를 보여 준다. “선천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돈이 불의한 사람을 따랐으나 이 뒤로는 그 눈을 밝게 하여 선한 사람을 따르게 하리라”<sup>25)</sup>고 하여, 인간의 탐욕에 의해 소유되던 경제적인 가치가 오히려 능동성을 부여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윤리 규범의 모습에서도 근본적인 기틀을 세우는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제시하였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하셨도다.”<sup>26)</sup>하여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어 불의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생의 도가 실현된 사회는 대립과 갈등과 투쟁이 사라진 사회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타인의 삶을 위하는 사회인 것이다. 또한 개개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원한도 남아 있지 않으며, 참된 평화를 바탕으로 영위되는 삶이다. 즉, “解冤이 先天의 矛盾 葛藤 對立 鬪爭 등에서 맺힌 怨恨을 푸는 것이라면 거

24) 裴宗鎬, 弘益人間思想과 龜山의 解冤相生思想, 龜山思想研究, 14輯, 1988, pp. 147 - 148

25) 教法, 1장, 63절

26) 教法, 3장 34절



기에는 먼저 그 矛盾 葛藤 對立 鬭爭 등의 根源的인 뿌리를 송두리째 없애 버려야만이 實地로 可能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두고서야 일단 풀린 것도 또 다시 맺힐 可能態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龜山은 三界 主宰者로서의 上帝의 權能을 가지고 先天의 相剋之理가 支配하던 天地度數를 뜯어 고쳐 後天의 相生之理로 改造公事를 斷行한 것이다.”<sup>27)</sup>

[典經]에,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sup>28)</sup>고 말 한 것은 두 가지 깊은 뜻이 있는 말이다. 하나는 운수만 바라지 말고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해원 공사를 함에 모든 일을 풀어 놓아 각자의 자유 행동에 맡겼기 때문에 先天의 拘冤 習性이 잘못하여 거짓으로 퍼져 나올 것을 걱정하여 도리어 먼저 亂法을 지어 어지럽게 한 뒤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마음을 神明으로 하여금 감정한 뒤에 眞法을 내릴 것이라는 斷案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은 亂法을 먼저 지은 뒤에 眞法을 내릴 것이라는 뜻으로 그가 御天하기에 앞서 弟子들에게 ‘마음을 잘 고치라’하고, 또 ‘개벽이란 것은 기회가 있다’고 하여 마음을 녹이어 조금하계 서두르지 말고 오직 ‘一心으로 믿어 나가라’ 하면서 ‘이제 천하를 도모 하려 떠나리니 일을 다 본 뒤에 돌아오리라’한 것은 크나큰 장래의 희망이요 또한 一心으로 믿어야 할 과제만 남아 있는 것이리라.<sup>29)</sup>

만일 우리가 선천 시대의 상극의 이치를 극복하고 일심으로 상생의 도를 따른다면, 상생원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모순과 갈등, 대립과 투쟁이 사라진다. 이 원리는 大全協同의 일대 화해를 성수하는

27) 裴宗鎬, 앞의 책, p. 147

28) 教法, 3장, 24

29) 裴宗鎬, 앞의 책, p. 150

근본원리이다. 여기서 비로서 평등과 박애가 실현되는 것으로 계급의 차별관이 없어지고, 嫡庶의 名分과 班常의 구별이 없어지고,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고, 食祿을 고르게 되며, 벼슬아치는 分數에 넘는 폐단이 없고 백성은 冤痛·怨恨·相剋·暴惡·貪心·淫蕩·忿怒와 모든 煩惱가 그치고, 각 민족들의 分爭이 없어지고 모든 神明을 解冤시키고, 미물 곤충도 잘 살게 하며, 天德과 地德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地上樂園으로 化할 것이다.<sup>30)</sup>

### 1) 생명 존중

김지하는 후천 개혁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후천개혁의 물줄기는 의통제세(醫統濟世), 치유(治癒)와 민중적 삶의 회복의 형태로 흘러 나갑니다. 그는 후천개혁을 다른 말로 의통제세로 불렀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술, 인술에 의해서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후천개혁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사회 질병설과 연관지어 볼 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질병이 아니라 온 세계의 문명사적 질병, 제도적 삶의 질병, 곧 〈죽임〉의 유행으로 부터 그 질병을 내 쫓는 생명의 〈살림〉이라는 변혁 방법이겠읍니다.”<sup>31)</sup>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후천개혁의 의미란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있는 것으로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 근본은 생명 존중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후천의 상생세계가 의미를 갖는 것은 생명의 귀중함과 존엄성을 보여 주는 데에 있다. 나 자신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고,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또한 다른 생명체의 생명 역시 귀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후천개혁의 의미를 생명을 살리는데 두는 김지하의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典經]에서도,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이 도와 응패의 술을 말씀들었도다. 그것은 이러하였도다.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濟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30) 앞의 책, p.150

31) 김지하 외, 미륵사상과 민중사상, 한진출판사, 1988, p. 25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sup>32)</sup>라고 하신 것을 보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상제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뿐 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귀중한을 말 씀하셨다. 즉, “하루는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부를 마치고 옷을 갈아 입고 방에서 나오시니 대원사 골짜기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갑자기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하나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함인가’ 하시니 금수들이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도다. 상제께서 ‘알았으니 물러들 가 있거라’고 타이르시니 수 많은 금수들이 그 이르심을 좇는도다”<sup>33)</sup>라는 내용을 보면 상제께서는 상생의 세계에서는 인간 뿐 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을 풀어 주어 상극적인 세계를 상생의 세계로 바꾸어 놓는 대역사를 단행하신 것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태도는, “상제께서는 어려서 부터 성품이 원만하시고 관후하시며 남달리 총명하셔서 못 사람들로 부터 경대를 받으셨도다. 어리실 때 부터 나무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 꺾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은 곤충도 해치지 않을 만큼 호생의 덕이 두터우셨도다”<sup>34)</sup>고 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생명의 귀중함에 대한 의식은 천지공사에도 나타난다.

김지하는 이 천지공사에서 생명 존중 사상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세계의 도래와 그 성격을 이야기 한다. “천지공사는 인도공사(人道公事)와 신명공사(神明公事)를 포함합니다. 곧 모든 사회의 상호 불신, 증오, 탐욕, 독점, 억압, 수탈, 오만, 기만 등을 모두 심판하여 해소시키고 민중 자신의 개인적 수양과 집단의 공동체적 협동 생활의 실천으로 인간의 길을 개혁의 길로 열어 나가는 활동이 있는가하면 모든 신명(神明)들, 원한에 사로 잡혔거나 불만이 있거나 증오에 가득 찼거나 굶주림에 한이 맺혔거나 역사 속에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임당한 모든 혁명가들, 반항자들, 봉기 민중들의 신명, 그 원귀(冤鬼), 미신(迷信)들에 대한 해원(解冤)과 그들의 정당한 역사적

32) 教運, 1장 16절

33) 行錄, 2장, 15절

34) 行錄, 1장, 11절

가치를 찾아 주고 누명을 벗기며 제 이름을 옳게 찾아 주는 신명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역사 가리워진 역사를 바로 잡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 만이 아니라 전 우주, 산 사람 만이 아니라 죽은 귀신들, 삼계육도(三界六道)에 살아 있는 것, 살아 있다고 생각되는 것, 죽었어도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상상력이 허용하는 온갖 것들에 대한 대개조 공사가 천지공사입니다. 이 천지공사는 이제까지의 선천 시대의 병든 삼계육도와 온갖 상극을 치료하는 우주적 의통(醫統), 우주적 대수술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sup>35)</sup>라고 하여, 생명 정신에 바탕을 둔 대개혁이 천지공사를 통해 일어난다고 한다.

현실 세계의 민생에 대한 구제의 意識은 상제께서 줄곧 갖고 계신 관심으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상제께서 벽을 향해 누우시더니 갑자기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제 온 누리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모두 구출하기 어려우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 하시고 크게 슬퍼하셨도다”<sup>36)</sup>는 내용에 나타난다. 이처럼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은 상생세계의 근원이면서 또한 실현해야 될 이념이라고 생각한다.

## 2) 차별의 철폐

후천의 상생세계란 모든 차별이 사라진 세계다. 특히 선천의 세계에서 차별을 받았던 여성과 반상의 차별에 의해 피해를 받았던 하층계급들, 빈부의 차이에 의해 차별을 받아야 했던 가난한 자들은 모두 다 후천의 세계가 도래 함에 따라 냉대와 질시를 벗어나 자신들의 본연의 권리를 회복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먼저, 여성의 차별에 대한 [典經]의 내용을 살펴 보자.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 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sup>37)</sup>는 내용이나,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

35) 김지하, 앞의 책, p. 26

36) 行錄, 5장, 24절

37) 公事, 1장, 32절

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sup>38)</sup>라고 하신 것은 모두 여성의 차별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을 보여 주시는 것이고 선천의 잘못된 차별을 척결하시려는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제께서는 여성의 해원을 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 中有泰仁 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sup>39)</sup>

이러한 내용들은 선천 시대의 상극적인 이치를 상생의 이치로 변혁시키는데 필연적으로 따라 오는 차별받았던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원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러한 해원을 통하여 이제 남녀동등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선천시대의 또 다른 차별상은 바로 반상의 차별이다. 양반과 상놈의 구분과 상놈에 대한 차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조선시대의 반상의 구별은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불러 일으켰다. 즉, 잘못된 사회 구조와 이로 부터 발생하는 구조적인 악은 나라가 위태로와 지면서 더욱 극악해져 결과적으로 동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한 상제께서는 이로 부터 발생하는 원한을 해원하기 위해 반상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시고 몸소 실천하신 예를 보여 주셨다. [典經]에서,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sup>40)</sup>고 하신 것은 반상의 구별은 그 근본적인 이치가 잘못된 것이므로 망한 기운이 따른다고 지적하신 것이며, 이러한 인습을 빨리 버리실 것을 명하신 것이다.

또한 상제께서는 반상의 철폐를 직접 실천하신 내용이 [典經]에 나타난다,

38) 教法, 1장, 62절

39) 豫示, 45절

40) 教法, 1장, 9절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에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일러주셨도다”<sup>41)</sup>라고 하신 것이 그 예증이다.

철폐되어야 할 또 다른 대상은 빈부와 귀천의 차별이다. 상제께서 행하신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가난한 자와 천대받으며, 소외 당했던 천인들에 대한 해원에서 잘 나타난다. [典經]에서, “상제께서 김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시고,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정하리라’하시고 경학을 시켜 무당 여섯명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의 관건을 벗기고 그들의 각자 앞에 청수를 떠놓고 그것을 향하여 사배를 하게 하고 시천주 세번을 제각기 따라 읽게 하셨도다. 이것을 끝내고 그들의 이름을 물은 다음에 각자로 하여금 청수를 마시게 하니 이것이 곧 복록이로다. 이것이 해원시대에 접어들어 맨 먼저 천한 사람들에게 교를 전하신 것이었도다”<sup>42)</sup>라는 것이 바로 귀천의 차별이 철폐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분명히 보여 주신 것이다. 또한 빈부의 차이의 판단 근거가 되는 보화에 대한 언급에서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典經]에서, “상제께서 안내성에게 말씀하셨도다.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고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 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sup>43)</sup>고 하신 것이 빈부의 차별을 금하신 내용이라 생각된다.

돌아오는, 혹은 이미 도래했을 지도 모를 후천시대는 더 이상 원한이 없는 유토피아적인 시대이다. 따라서 어떤 신분계층도 더 이상 외적인 요인 때문에 소외받지 않게 될 것이다. 과거 신분제 중심의 봉건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이 예언은 부분적이지만 상당히 실현되었다. 우리 주위에서 과거와

41) 教法, 1장, 10절

42) 教運, 1장, 32절

43) 教法, 1장, 38절

같은 신분차별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sup>44)</sup> 그러나 아직도 선천 시대의 구습이 남아 있는 것은 빈부의 차이에서 오는 차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빈부의 차별상은 과거 보다는 나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원한이 쌓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신적인 가치 보다도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가치관의 전도에 있다. 앞으로의 세계는 바로 이 전도된 가치를 바로 잡는데 그 흥망성쇠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생의 이치에 따라 신분의 차별에 대한 철폐가 사라지듯이 점차 빈부의 차별상도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이러한 차별로 부터 원한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원과 척의 소멸

### 1) 無慾

개인적인 측면에 국한시켜 원과 척에 대해 생각한다면, 원과 척의 발생은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개개인이 갖는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욕심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는 원한을 쌓이게 만든다. 그러므로 원한을 쌓이지 않게 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많은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불교에서 집착을 버리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업을 쌓게 되는 원인을 인간의 욕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도 ‘人欲’을 버리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인간은 욕구하는 그 대상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일순간에 그 욕심을 모두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욕심은 어느 정도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척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즉각 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 있다. 만일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행위가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아 척을 짓는 행위가 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란 스스로 그 멈추는 바를 모르기가 일반적이며, 또 인간 존재는 이 기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려는 행위

44) 최준식, 개벽시대를 여는 사람들, 주류성, 1998, pp. 67 - 68

가 적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와 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욕심일지라도 그 욕심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한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 [典經]에서,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sup>45)</sup>고 하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극복을 위해 스스로 마음을 바로하여 욕심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상생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타인이 피해를 받는 것과 무관하게 실행할 수 없다. 나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신명에 의해서 제지를 받게 된다. 즉,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sup>46)</sup>고 하여, 사리사욕에 빠져 일을 자신에게 이롭게만 처리한다면, 신명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제지당하게 되므로, 참된 이치를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한 자세와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도 상제께서는,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고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 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sup>47)</sup>라고 하여, 재물의 욕심은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게 만

45) 教法, 3장, 24절

46) 教法, 1장, 29절

47) 教法, 1장, 38절



드는 원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재화에 대한 욕심의 결과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에 끌려 다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典經]에서,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sup>48)</sup>하신 것은 인간의 바로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측은한 생각을 보여 주시는 것이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란 재물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화에 대한 욕심이 충족된다고 해서 바라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화를 얻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에 의해서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구 대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며, 삶의 참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욕심으로부터 해방된 무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 2) 報恩

앞의 절에서 논의한 ‘無欲’의 삶이 상생의 세계를 이루는데 있어서 인간 개개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로서 소극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라면, ‘報恩’은 좀 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실천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解冤相生이 의미하는 것도 결국 남에게 척을 짓지 말며, 적극적으로 타인이나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입은 은혜에 능동적으로 보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典經]에서는,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sup>49)</sup>라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행동할 것을 말한다. 원수에 앙갚음을 하려는 행위는 또 다른 원한을 쌓이게 할 뿐이다. 이러한 연쇄적인 고리는 인간의 세상을 한없는 투쟁의 장소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 고리를 끊어 이 세상이 명실상부한 평화로운 세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가, “상제께서 천원(川原)장에서 예수교 사람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 가슴뼈가 상하여 수 십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크게 고통하는 공우를 보시고

48) 教法, 1장, 1절

49) 教法, 1장, 56절

가라사대 ‘너도 전에 남의 가슴을 쳐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네가 완패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축이려고 생각하나 네가 전에 상해한 자가 이제 너에게 상해를 입힌 측에 붙어 갚는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 다행이라. 내마음을 스스로 잘 풀어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후일에 만나면 반드시 잘 대접할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나오리라.’ 수 일 후에 천원 예수교회에 열두 목사가 모여서 대 전도 회를 연다는 말이 들려 상제께서 가라사대 ‘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 열 두 고을 목사가 움직였노라’하시니라. 그 후에 상처가 완전히 나았도다”<sup>50)</sup> 한 내용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원수에 대해 은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될 때에 그 상대와 나 자신이 해원된 마음을 지니게 될 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도 덕화된 이상적인 삶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또 하루는 경석에게 가라사대 ‘갑오년 겨울에 너의 집에서 삼인이 동맹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렇다고 대답하니라. 상제께서 ‘그 일을 어느 모해자가 밀고하므로써 너의 부친이 해를 입었느냐’고 하시니 경석이 낙루하며 ‘그렇소이다’고 대답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의 형제가 음해자에게 복수코자 함은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이나 너의 부친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여 나에게 고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돌리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하시니라. 경석이 세 아우와 함께 옆 방에 모여 서로 원심을 풀기로 정하고 상제께 고하니 상제께서 ‘그러면 뜰 밑에 짚을 펴고 청수 한 동이를 떠다 놓은 후 그 청수를 향하여 너의 부친을 대한 듯이 마음을 돌렸음을 고백하라’하시니 경석의 네 형제가 명을 좇아 행하는데 갑자기 설움이 복바쳐 방성 대곡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너의 부친은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을 괴로와 하니 그만 울음을 그치라’이르시니라. 그 후에 ‘천고춘추 아방궁 만방일월 동작대(千古春秋阿房宮 萬方日月銅雀臺)’란 글을 써서 벽에 붙이시며 경석으

50) 教法, 3장, 12절

로 하여금 항상 마음에 두게 하셨도다.”<sup>51)</sup>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도 절대로 악을 악으로서 갚아서는 안되고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報恩의 구체적인 행위는 이상적이고 고원한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인간의 삶의 과정 자체가 보은의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타 존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혼자 독자적인 존재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설혹 혼자만의 삶이 가능하다고 해도, 산다는 것 자체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 외의 존재로부터 혜택을 받음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으로 받는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典經]에서,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아래로부터 올라 오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도의로서 부모를 잘 공양하라”<sup>52)</sup>고 하신 것이다. 報恩이란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부터 실천해야 하는 가장 밀접한 실천 규범이다. 報恩의 적극적인 실천이 곧 상생의 세계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IV. 해원상생의 실현

### 1. 修道

해원상생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다.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不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곧 어떠한 경우라도 외물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전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인간의 의지를 중시하는 것이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일의 성패를 나누게 한다. 그러므로 [典經]에서는 ‘一心’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

51) 教法, 3장, 15절

52) 教法, 1장, 41절

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sup>53)</sup>라는 지적과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임낙안(林樂安)은 죽고 최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sup>54)</sup>고 하신 것은 인간사에 있어서 ‘一心’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바탕이 있어야 해원상생 사상의 실천이 가능하다.

一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아무런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능숙해지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요구되듯이 마음의 작용도 마찬가지다. 불교나 유교에서도 항상 마음을 닦는 수양이 강조되는 것처럼 일심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修道는 곧 우리의 어린 마음과 탐욕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정신 자세를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고, 삶의 종국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상생의 사회를 이룩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다.

[典經]에서, “내가 도통 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 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들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sup>55)</sup>라고 하여 심신 수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 원한이 맺히지 않고, 적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修道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여, 자신에게서나 타인에게 폐해가 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종교에서 인간의 마음을 중시하여 수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에서는 업의 윤리에 있어서나 해탈을 위한 도덕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불교 윤리의 특색으로 지적할 수가 있다. 선(善)에 반대되는 불선(不善)은 인간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불선의 근원을 3독(三毒) 또는 삼화(三火, 때로는 三不善根)로 표시하는데, 탐(貪; 我執)· 진(瞋; 憎惡) 그리고 치(癡; 無智)가 바로 그것이다. 사랑 하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변화시키려 하지 말 것이며, 마음의 집착을 버리려

53) 教法 제2장 5절

54) 教法 제3장 20절

55) 教運 제1장 41절

면, 그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3독을 소멸한 상태가 열반이기도 한데, 깨달음을 출발점으로 하는 원시 불교의 중심은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56)</sup>

유교에서도 수도의 의미를 인간세계에 국한시켜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수도의 의미를 찾는다. “관계중심으로서의 자아는 언제나 유가 배움의 초점이 되어왔다. 인간 관계를 조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자기 수양을 가리키며, 우선권은 분명히 정해졌다. 자기 수양은, 인간 관계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즉, 만일 필수적인 요소인 자기 수양이 결여된 채 피상적으로 인간 관계의 조화가 이루어 진다면, 이것은 실제로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며, 목적론적으로 잘못 지도된 것이다. 소인의 우정은 꿀처럼 달콤하며, 대인의 우정은 물처럼 텅텅하다는 말은, 필요성에 의해 강요된 관계는 도덕적 성장에 몰두하는 사욕없는 우정보다 훨씬 열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타인과 교제를 하게 되며, 현대의 어떤 사회학자들은, 대부분의 교제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며, 그래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삶에 무관심한 것으로 본다. 유가는 인간 존재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든 형태에는 도덕적 의미와 그들 서로를 조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 수양이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한다.”<sup>57)</sup>

자아를 위한 배움에서 드러나는 가치는 자기 수양의 명령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수양은 수단이라기 보다는 목적이므로, 자기 인식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 즉 명성, 지위, 부에 의해 유발된 배움은 참된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 과녁을 맞추는데 실패해서, 자신의 내부에서 그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 반성하는 사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외부세계에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유가의 관심을 보여준다.

만일 인간 관계가 조화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관계를 이룬 그 자신들이 수양이 됐기 때문이다. 자아 수양을 위한 바람직한 조건으로서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원한다는 것은 유가적인 의미에서는 비현

56) 나학진 외, 종교와 윤리,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4, pp. 36 - 37

57) Tu Wei - Ming, Confucian Though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5, p.

실적일 뿐 만아니라, 비논리적이다. 자아 수양은 뿌리나, 큰 가지와 같은 것이며, 조화를 이룬 관계는 작은 가지와 같다. 우선권은 일시적으로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 변경될 수 없다. 엄격히 말해서, 만일 이타주의가 자기 인식의 기반 위에 서있지 않다면, 이타주의를 실증하는 타자를 위한 배움은 진실로 이타적일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나에게도 하지말라”는 유가의 황금률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이 말은, 사람은 그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가 그의 가장 훌륭한 제자들 중 몇몇은 여전히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이 배워야 함을 느낀 것은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sup>58)</sup>

이처럼 마음의 작용은 불교와 유교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도를 통해 일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典經]에서,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 주리라”<sup>59)</sup>고 하신 것을 보면, 일심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즉, 수도는 어느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한시라도 방심을 해서는 안된다.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렵다’는 말씀처럼 죽음을 불사하는 정신 자세로 수도에 임할 때, 자신의 내적인 세계가 변화와 이로 인해 전에 가졌던 상극적인 세계가 상생의 세계로 변화 될 수 있다.

## 2. 開關

해원상생의 궁극적인 실현은 ‘開關’ 사상에서 나타난다. 선천의 상극적인 도수를 완전히 개조하여 상생의 이치로 바꾸어 놓는 것이 開關이다. 이로부터 이 세상은 진실된 마음을 지닌 자 만이 살아 남을 수 있으며, 참된 인간 세계가 이룩되는 것이다. [典經]에서, “이 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58) 앞의 책, p. 56.

59) 敎法 제2장 4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sup>60)</sup>라고 하여, 개벽이 이루어진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말씀하신다. 인간의 세계에는 진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짓과 욕심이 인간의 심성을 혼탁하게 만들어 놓으므로 왜곡된 사실들이 진실인 양 가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는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사악한 정신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잘못된 상극의 이치를 따르는 주장들이 자기의 주장이 참됨을 역설하기도 한다.

상제께서는,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sup>61)</sup>고 하신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의 반목 투쟁은 서로의 생각이 잘못된 근원에서 기인하므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근원을 바로 잡지 않고는 개벽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후천개벽사상의 요체는 현실에서의 이상세계인 ‘지상선경’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것은 현실상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세계가 상극적인 이치에 의해 지배됨으로서 나타나는 많은 병폐에 대한 불만이다. 따라서 후천개벽사상은 현상적 인간의 현실 세계에 대한 초월적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치가 바로 서고 이 이치를 실현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상생의 이치를 따르므로써 순수한 본래의 마음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典經]에서, “상제께서 하루는 김형렬에게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60) 豫示, 30절

61) 公事, 3장, 5절

널리 건지려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sup>62)</sup>고 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개혁사상은 선천의 상극세계에서 후천의 상생세계로 전환을 선포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의미는 "시속에 말하는 개혁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혁장(開關長)을 말함이니라"<sup>63)</sup>는 언급에서 개혁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혁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 마다 얼굴이 쳐다 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해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 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든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sup>64)</sup>라고 하여, 개혁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선언하신다. 이것은 개혁사상이 독창성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전의 세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이전의 어떠한 것도 불필요함을 역설하신 것이다. 이로서 후천의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 즉, 선천의 도수를 상제께서 개혁하고 인간은 개혁된 이치를 따라 일심으로 매진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62) 豫示, 17절

63) 公事, 1장, 1절

64) 公事, 1장, 2절



## V. 맺는말

대순사상에 있어서 해원상생 사상이란 가장 실천적 성격을 가진 교리라고 생각된다. 사변적인 지식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해원상생의 도리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도를 체득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 해원상생의 실천은 곧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윤리적인 덕목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일신하여,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며, 이렇게 각각의 개인이 완성될 때, 후천세계의 이상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하는 문제였다. 이 구체적 실천 방법에 대한 대체적인 강령은 먼저 상제에 의해 제시된 상생의 도를 이 현실 세계에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수도와 선천의 상극의 이치를 상생의 이치로 바꾸는 개혁에 달려 있다.

상제께서 수행하신 삼계 개혁공사는 현실 세계의 대환란 속에서 뒤엎혀 있던 인류의 존재 양상이 '開闢'에 의해 질서잡힌 새로운 세계로, 즉, 후천 선경의 이상 사회로 전환되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며, 대립과 투쟁 일색이었던 이 세상에 종지부를 찍고 신질서의 후천선경을 여는 전 인류의 광제광구라는 대순사상의 종교적 목적 의식을 실현시키는 대역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상제로서 이 땅에 강세하셔서 새로운 천지인의 삼계를 개창하시는 종교적 행위를 감행하신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상극이라는 종교적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 모순의 해결책은 인간의 삶의 배경인 세계의 개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개조는 인간과 신명의 심층적 내면으로 부터의 해결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는' 역사를 하게된다. '만고의 원한'을 푸는 것은 '단주(丹朱)'까지 소급되는 제일원인의 해소에서 완벽성을 이루므로써, 단순히 현실 문제나, 개인의 심성 문제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기존의 종교에서 보여 주었던 해결 방식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의 종교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이러한 방법 만이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울 수 있는 것이며, '세계

의 민생은'은 상제께서 베푸신 종교적 덕화(德化)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뜯기고 세워진 새로운 세계 다시 말하여 후천의 선경은 원(冤)을 해소한 본래적 심성을 가진 인간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sup>65)</sup>

---

65) 拙稿,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 제2권, 1996, p. 112

**【참고문헌】**

- 金 鐸, 甌山敎의 創造的 解釋에 관한 研究, 宗教研究, 제3집, 韓國宗敎學  
會, 1987
- 증산교學, 미래향 문화, 1992
- 황선명, 민중종교와 권위신앙, 주류, 1982
- 김상기, 동학과 동학난, 한국일보사, 1975
- 김홍철, 대순진리회의 실천 수행원리, 대순논집, 1, 대순종교문화 연구소,  
1992
- 유병덕, 한국 신흥 종교, 시인사, 1986.
- 崔東熙, 韓國思想의 源流와 甌山思想, 甌山思想研究, 15輯, 1989
- 裴宗鎬, 弘益人間思想과 甌山의 解冤相生思想, 甌山思想研究, 14輯, 1988
- 김지하 외, 미륵사상과 민중사상, 한진출판사, 1988
- 윤이흠, 한사상과 민족 종교, 일지사, 1990
- 최준식, 개혁시대를 여는 사람들, 주류성, 1998
- 나화진 외, 종교와 윤리,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4
- Tu Wei - Ming, Confucian Though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5.
-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 제2권, 1996
- Frederick J. Streng, 鄭鎮弘 譯, 宗敎學 入門, 大韓基督教書會, 1975
- 鄭鎮洪, 宗敎학 서설, 전망사, 1980
- 岸本英夫, 宗敎學, 김영사, 1983